

■ 지방선거 핫코너

이호준 '자서전' 출판 기념회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호준 전 남구 부구청장이 3일 오후 광주시민회관에서 '이호준 나의 인생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은 이 전 부구청장이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내무부 공무원을 거쳐 남구 부구청장,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문화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을 두루 섭렵하고 시의회 사무처장을 마무리하기까지 인생 역정이 담겼다.

김충석 "여수박람회 공개 토론회" 개최

김충석 전 여수시장은 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역대 최악의 박람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 여수시청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가 관람객 수를 제조사하겠다고 하는 등 박람회 축소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최형식 "담양군수 출마" 선언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2일 담양군 담양문화회관 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담양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군수는 "지난 4년간 자기성찰과 담양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며 "더 나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담양을 살리는 깨끗한 경제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농정을 균형 최우선 순위로 정해 1~3차 산업이 복합된 6차 산업의 신 산업화를 통한 부농실현에 힘쓰고 체류형 관광도시, 첨단문화 복합도시, 녹색도시, 전원형 교육도시 등 담양을 선진국형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범석 "광주 남구청장 출마" 선언

정범석 전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 위원장은 2일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회견에서 "남구를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정책선거·공정선거를 다짐했다.



그는 남구 의원 3선, 남구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국산 도요타 무상 수리해 준다”

한국도요타, 리콜 문의 쇄도하자 본사에 확인 조치 미국발 사태 확산...도요타·혼다 중고차 시세도 급락

도요타 차량이 국내에 공식 판매되기 이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도요타자동차 측은 2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재원들이 외국에서 구입해 갖고 온 것이나 병행수입업체들이 판매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해당 차량의 생산 고유번호를 본사에 확인한 뒤 리콜 대상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전국 5개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 소비자에서 문의가 들어와 본사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차량은 20여대라고 한국도요타 측은 전했다. 한국도요타는 미국발 리콜 사태가 확산되자 “국내에 판매된 승용차는 문제가 된 모델과 생산지가 다르고 사용된 부품도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국내에서 이전에 판매된 미국산 모델에 대해서는 대책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산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해당 모델에 대해 무상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요타 측은 해당 차량이 국내에 얼마나 존

재하는지 전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입차 업계는 대략 2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경부터 일부 수입사들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1천여대와 SK네트웍스가 2007~2008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미국산 캠리와 아발론 150여대, 북미 지역에서 주재원 등으로 있으면서 갖고있던 차량을 들여온 경우 등을 합쳐 추산한 수치다. 한편, 소비자들은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도요타 차량에 대해서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요타 전시장에는 국내 판매 중인 차량의 안전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캠리 등을 계약해 출고를 기다리던 소비자들 중 일부는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요타 딜러점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내 출시 차량도 리콜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간혹 차량 수급이 늦어진다든 이유로 계약 취소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내에서 도요타 차량의 부품 성능 조사에 나선 가운데, 2일 서울 반포동 도요타 매장앞을 캠리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도요타의 경우 국내에 공식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세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비슷한 혼다의 경우에는 리콜의 영향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혼다자동차가 도요타에 이어 지난달 말 청문스 위치 결함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피트’ ‘제트’, ‘시티’ 모델 64만6천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힌 뒤 국내에서 인기리에 거래되던 어코드, CR-V, 시빅 등

의 가격이 평균 5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업계는 전했다. 중고차 전문기업 SK엔가의 경영지원본부 정인국 이사는 “리콜 후 도요타와 혼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30% 가량 줄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면 브랜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속페달 수리 개시, 문제 차종 8일부터 생산·판매 재개

도요타 대책 발표...신뢰 회복 당분간 어려울 듯

도요타자동차 미국법인이 1일(현지시간) 가속페달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손실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요타측이 발표한 대책은 ▲1일부터 중단했던 리콜 대상 8개 차종의 생산을 8일부터 재개하는 동시에 판매 재개를 검토하며 ▲리콜 대상 차량의 가속페달 수리를 급우에 개시하고 ▲(수리 방법은) 가속페달에 강화판을 부착해 마찰을 감속시킨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요타측은 지난달 21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대규모 리콜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만에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차량 보유자의 안전 최우선’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도요타자동차판매의 짐 렌츠 사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등장, “이렇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미국 NBC 방송에도 출연, “대책에 자신이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간부사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고객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며 “(가속페달 불량은) 매우 한정된 조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에서의 리콜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요타측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속페달 불량 리콜 사태로 인한 충격과 손실을 줄이는 데는 한

계가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제발 방지대책이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도 있다. 여기에 대량 리콜의 원인이 되는 가속페달 결함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었다는 점도 도요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는 도요타의 차량이 단순히 가속페달이 아니라 속도를 제어하는 전자부품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도요타는 지난달 가속페달 이상 문제와 관련, “2009년 9월에 차량 소유자의 불만이 접수돼 사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2007년에도 페달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접수됐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까지 나왔다. 연합뉴스

“北, 10년내 핵 탑재 ICBM 개발 가능”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향후 10년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일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실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을 성공할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ICBM 개발을 위한 많은 기술들은 성공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향후 10년내 자신들의 국가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시스템에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lantern and text promoting credit services for students and workers.